제5장. 한국 양명학 연구

선병삼

1. 머리말

본 내용은 2014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한국양명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을 기준으로 삼았다. 선별 논문의 발표 시기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이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집을 연구재단 분류 방식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철학전문 등재지(후보지) 25개, 유교학 4개, 기타인문학 1개, 중국어와문학 1개, 역사학 19개이다.
이상의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양명학> 에 해당되는 논문은 총8편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논문에 대한 일목요연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두 가지 분류 방식에 따라 나누어보았다. 첫째는 인물별 분류이고 둘째는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강화학파와 기타로 분류하였다. 주제별 분류에서는 전체 논문 수가 많지 않은데다가 주제에 따라 묶기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교육, 생태, 경학), 내용별(도덕문장론, 실심실학, 전기, 격물치지)로 정리했다.

2. 인물별 분류

1) 강화학파 관련 논문(6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민재	정제두의 양지가 지니는 특징과 구현 과정에 대한 일고	<철학논총> 제78집 제4권	새한철학회
2	김세정	하곡 정제두의 생태의식	<유학연구> 제31집	유학연구소
3	김세정	정제두의 천지만물일체를 위한 수양론	<동서철학> 연구 74권	동서철학회
4	천병돈	蘭谷 李建芳과 深齋 曺兢燮의 道德文章론	<양명학> 제38호	양명학회
5	선병삼	양명학자 정제두의 『중용』 이해	<동양고전연구> 제55집	동양고전학회
6	한정길	심학(心學)과 실학(實學)의 재검토 ; 조선양명학의 실심실학(實心實學)과 조선 후기 실학(實學)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의 양명학관(陽明學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28권	한국실학학회

한국양명학 관련 전체 8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을 분류하자면 이른바 강화양명학파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강화학파의 태두인 정제두 사상을 다룬 논문이 총 4편으로 50%를 차지한다. 바로 김민재의 <정제두의 양지가 지니는 특징과 구현 과정에 대한 일고>(철학논총 제78집, 제4권), 김세정의 <하곡 정제두의 생태의식>(유학연구 제31집)와 <정제두의 천지만물일체를 위한 수양론>(동서철학연구 74권), 선병삼의 <양명학자 정제두의 『중용』 이해>(동양고전연구 제55집)이다.

김민재는 정제두 양지학을 도덕윤리학과의 비교론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현대적으로 조명학고 있으며, 김세정의 논문은 정제두 철학을 각각 생태론과 수양론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선병삼은 정제두 경학사상의 일부분인 <중용>관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한말에 이르러 강화학맥을 계승한 이건방과 그의 제자인 정인보를 다루고 있는 논문은 천병돈의 <蘭谷 李建芳과 深齋 曺兢燮의 道德文章론>(양명학 제38호)과 한정길의 <심학(心學)과 실학(實學)의 재검토 ; 조선양명학의 실심실학(實心實學)과 조선 후기 실학(實學)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의 양명학관(陽明學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중심으로->(한국실학연구 28권)이다. 천병돈의 논문은 당시 문장가로 유명했던 조긍섭과 주고받은 문장론 서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건방의 양명학적 문장론을 소개하고 있으며, 한정길의 논문은 정인보가 한국양명학의 기준으로 제시

한 실심실학 개념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진행하였다.

2) 기타(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천병돈	深齋 曺兢燮의 '格物'설 연구	<양명학> 제39호	양명학회
2	노승석	芝浦 朴鐔에 대한 일고찰	<양명학> 제39호	양명학회

노승석의 <芝浦 朴鐔에 대한 일고찰>(양명학 제39호)에서 다루고 있는 박심은 본래 주자학의 입장을 견지한 주자학자이기는 하지만 하곡의 講友로서 하곡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하곡학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받는다. 이건방과 학문적 교류를 나눈 심재 이긍섭은 영남학을 계승하여 주자학 전통에서 양명학을 비판하는데, 천병돈의 <深齋 曺兢燮의 '格物'설 연구>(양명학 제39호)는 현재 학계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은 그의 격물설을 탐구한 글이다. 여기에서 한말 지식인의 양명학 비판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3. 주제별 분류

14년 한 해 동안 발표된 총 8편의 논문은 수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는 하지만 주제별로 나누어 본다면 단조롭지는 않다. 먼저 정제두를 논한 논문들을 주제별로 구별하면, 김민재의 <정제두의 양지가 지니는 특징과 구현 과정에 대한 일고>(철학논총 제78집, 제4권)는 교육학적 측면에서, 김세정의 <하곡 정제두의 생태의식>(유학연구 제31집)은 생태학적 측면에서, 선병삼의 <양명학자 정제두의 『중용』 이해>(동양고전연구 제55집)은 경학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세 편의 논문들은 하곡의 사상을 각기 다른 프리즘을 통하여 조망하고 있는데, 이는 하곡 사상 자체의 다양한 요소를 보여주기도 하거니와 하곡 사상을 심화 확대한 연구로도 평가할 수 있다.

하곡학파와 관련해서는 천병돈의 <蘭谷 李建芳과 深齋 曺兢燮의 道德文章론>(양명학 제38호)은 조선후기 양명학자의 문장론을 살필 수 있게 해주며, 한정길의 <심학(心學)과 실학(實學)의 재검토 ; 조선양명학의 실심실학(實心實學)과 조선 후기 실학(實學)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의 양명학관(陽明學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중심으로->(한국실학연구 28권)은 한국양명학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실심실학에 대한 메타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지는 논문이다.

한편 양명학자는 아니지만 당시 양명학자들과 교류를 가졌던 두 명의 유학자(박

심, 조긍섭)에 대한 논문은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새로운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노승석의 <芝浦 朴鐔에 대한 일고찰>(양명학 제39호)은 문집이 소실되어 초보적인 전기적 연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박심을 당시의 다양한 문헌을 참조하여 소상하게 밝히고 있으며, 천병돈의 <深齋 曺兢燮의 '格物'설 연구>(양명학 제39호)는 한말에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던 조긍섭의 격물설을 전문적으로 논한 최초의 연구 성과이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조선유학은 주자학 독존이었다. 주자학에 반기를 든 학문은 심지어 사문난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양명학 또한 여기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하곡 정제두는 중국 양명학을 받아들여 당시 조선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자 했다. 그가 만년에 강화도에 은둔하며 길렀던 후학들은 훗날 하곡학파(강화학파)로 대성을 이루었고 한말의 애국애족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바로 이 토양에서 성장하였다.

사실 하곡 정제두에 대한 연구는 곧 조선양명학에 대한 연구이며 정제두 양명학의 특징은 곧 한국 양명학의 특징이다. 위당 정인보는 하곡 양명학의 특색을 實心實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곧 조선 양명학의 특징으로 삼고 조선의 양명학파를 세 부류로 나눈다.

첫째 부류는 뚜렷한 저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말하고 논하는 사이에라도 분명히 증거할 만한 것이 있어서 외간에는 몰랐을지라도 양명학파라고 하기에 의심이 없는 이들로서 최명길, 장유, 최석정, 정제두, 이광신, 김택수가 이에 속한다. 둘째 부류는 양명학을 비난한 말이 있는데 앞뒤를 종합해보면 이는 교묘하게 속이는 말일뿐이고 속으로는 양명학을 주장했던 것을 가릴 수 없는 이들로서 이광사, 이영익, 이충익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양명학을 일언반구도 언급한 적이 없고 받드는 것은 회암에 있으며 양명을 말하지 아니하되 그 평생 주장의 핵심이 되는 정신을 보면 두말할 것 없이 양명학자임을 알 수 있는 이들로서 홍대용이 이에 속한다.

그런데 위당의 이와 같은 분류는 조선후기의 실학자로 평가받는 홍대용을 양명학자로 분류한 데에서 보이듯 조선양명학의 實心實學과 조선후기 實學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바로 이 문제를 파고든 논문이 한정길의 <심학(心學)과 실학(實學)의 재검토 ; 조선양명학의 실심실학(實心實學)과 조선 후기 실학(實學) -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의 양명학관(陽明學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중심으로->(한국실학연구 28권)이다.

한정길은 이렇게 말한다. "위당의 이러한 양명학관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것은 '실심실학'이라는 용어가 양명학만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심실학'은 주자학자들이나, 양명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조선 후기 실학자들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실심에 근거한 실학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를 곧바로 양명학자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위당은 '조선양명학파'를 서술하면서 실심에 근거한 실학을 한다는 이유로 양명학을 이단으로 비판하는 사람들까지 양명학자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양명학자가 아님에도 '조선양명학파'로 분류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했다."

충분히 타당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도대체 실심실학이라는 이 4글자로 조선양명학자를 주자학자들과 실학자들로부터 구분된 그들만의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특히 실심이라는 말은 조선 후기의 문헌자료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것을 조선 후기의 새로운 학문적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실심을 강조하거나, 혹은 실심에 근거한 실학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양명학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양명학에 대해 비판적인 이들도 실심실학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윤증, 홍대용, 박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실심실학을 주장하지만 양명학자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심지어 강화학파에 속하는 학자들조차도 양명학을 비판한 경우를 거론하면서 "기존 연구에 의하면 강화학파가 공유하는 학문적 특성은 실심실학이다. 그러나 강화학파 가운데는 양명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물도 있다." 라고 지적한다.

결국 위당의 조선양명학파 분류 방식의 문제는 분명하다. "강화학파의 학문을 실심실학의 범주로 묶을 수는 있지만 양명학의 범주로 묶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심실학과 양명학이 동일 범주는 아니다. 실심실학은 양명학보다 그 외연이 더 크다. 위당 양명학관의 문제점은 실심실학에서 실심의 외연을 분명하게 정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하여 한정길은 실심실학과 관련하여 결론 부분에서 두 가지 제안을 내놓는다. "우선 실심실학을 세밀하게 분류하는 작업이다. 예컨대 주자학적 실심실학, 양명학적 실심실학, 실학자들의 실심실학, 하곡학파의 실심실학이 그것이다.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실학의 의미 내용과 그 이론적 기반이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하곡학파 가운데 양명학적 실심실학을 주장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변별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하여 하곡학파 가운데 양명학적 실심실학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양명학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실심실학이라는 용어는 조선양명학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지 오래다. 그러나 실심실학이라는 용어는 실학 개념처럼 태생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본 논문은 바로 이 지점을 메타적으로 접근하여 해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본 논문의 의도는 성공적인가? 실상 성공적이라고 할

어떤 결과물은 아무 것도 없다. 그렇기는 하지만 실심실학이라는 이 용어는 제약성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공론화 했다는 점에서, 다시 말하면 좀 더 발전된 논의를 위한 토대를 확실히 다졌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가치는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한정길의 제안책을 포함하여 어떻게 실심실학으로서의 조선양명학파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가령 규정 방식을 논하는 것과 더불어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하곡학과 양명학의 비교, 하곡학과 양명후학의 비교, 하곡학과 일본양명학의 비교 등을 통하여 한국양명학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밝혀내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제두 사상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문제는 정제두 사상에 드리운 주자학과 양명학 영향에 대한 평가이다. 이는 앞서 한정길 논문에서 다룬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실심실학이라는 규정은 양명학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자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정제두의 실심실학을 양명학적 요소로도 또는 주자학적 요소로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면 양명학자로서의 하곡, 주자학자로서의 하곡, 아니면 주륙조화론자로서의 하곡 등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대 정제두 연구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사학자 尹南漢(1922- 1979)도 일찍이 이와 유사한 견해를 이미 피력한 바가 있다. 즉, 정제두의 사상을 3시기로 나누어 제2기인 41-60세의 안산 시기에는 王學을 전적으로 공부하였고, 제3기인 60세 이후의 강화 시기에는 경학과 경세학에 역점을 두면서 왕학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정주적 회귀 경향을 뚜렷이 하였다고 평가한다. 특히 강화 시기 이후로 경학 중심으로 나아가는 변화는 하곡이 젊어서 비판하던 정주학과의 타협과 회귀이거나 혹은 양명 사상의 내면화를 통한 주・왕학의 통합이라는 의미에서 경학을 귀숙처로 삼았다라고 평가한다.

60세 이후 강화도에 은거한 후 하곡의 저술은 확실히 경세론, 경학, 예학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전의 <존언>이나 <학변>같은 양명학을 전면에 내세운 저작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윤남한의 지적이 맞다는 것인가? 이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제시한 논문이 선병삼의 <양명학자 정제두의 『중용』 이해>(동양고전연구 제55집)이다.

양명심학이 주자학을 비판하는 기본 입장은 육상산 이래의 도문학과 존덕성의 대립적 구도이다. 즉 주자가 도문학에 치중하여 존덕성 공부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양명은 '六經皆我註脚'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가? 이런 점에서 보자면 윤남한이 강화 시기 이후로 경학 중심으로 나아가는 변화는 하곡이 젊어서 비판하던 정주학과의 타협과 회귀이거나 혹은 양명 사상의 내면화를 통한 주・왕학의 통합이라는 평가는 충분한 전후 근거를 갖고 있다.

선병삼은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 <중용설>을 선택한다. <중용>은 송명이학의 핵심 경전으로서 정제두의 경학관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경전임과 동시에 <중용설>은

그의 나이 72세에 완성한 저작으로 정제두 <중용> 이해의 정수를 담고 있는 글이기 때문이다. 선병삼의 가설은 비교적 분명하다. <중용설>은 <중용>에 대한 일종의 경학적 연구이다. 그런데 이 <중용설>은 양명학적 입장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하곡의 경학 중심이 정주학과의 타협과 회귀이거나 혹은 양명 사상의 내면화를 통한 주・왕학의 통합이라는 윤남한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선병삼은 먼저 <중용> 수장(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에 대한 정제두의 주해에서 주자와 다른 점 세 가지를 거론한다. 바로 첫째 性의 범위. 둘째 率의 의미. 셋째 修의 의미이다.

첫째, 性의 범위에서 "주자가 존재 근거인 性과 그 구체적인 조리인 道는 존재자(인간과 만물)에게는 필수불가결하다는 존재론적 입장에서 사람 외에 만물까지 외연을 확대했다면 정제두는 인간의 도덕실천에 국한하여 오로지 人心으로 국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다.

둘째, 率의 의미에서 "'率은 따른다는 것이니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다. 道는 人心 본연의 도리로서 性의 본체가 되고(性之實事)'라고 주해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가 성의 본체'라는 주해는 주자의 입장을 충실하게 따른 것으로 사료되지만 애초에 제1장 전체를 주해하는 입장에서 修道의 두 요소로 率性(聖人分上事)과 修道(賢人分上事)를 제기한 이상 이때의 率性은 주자의 입장과 상충되게 된다. 이처럼 率性에 대해서 이중의 규정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양명학의 종설인 致良知 공부론이란 것이 良知의 명령에 순응하여 良知를 실천・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구조적으로 양지는 人心 본연의 도리로서 性의 본체가 되면서 동시에 공부론에서 보자면 양지의 명령에 순응하는 率性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평가한다.

셋째, 修의 의미에서 "정제두는 '修는 닦는 것이니 (性의) 實事가 사람에 달려 있는 것이고 敎는 본받아 행하는 의미로 도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주자의 입장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데 일찍이 왕수인 또한 敎를 禮樂刑政으로 주해한 내용을 비판한 내용이 『전습록』에 실려 있다. 왕수인 비판의 근본적 이유는 예악형정을 敎로 인정한다면 이는 주자가 일명 「補亡章」에서 설파한 卽物窮理의 格物致知說을 긍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고 평가한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首章三言인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에 대하여 주자와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비록 간략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하여 정제두 『중용』 이해의 핵심이 心學的 修道에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라고 하여 하곡의 <중용> 이해는 윤남한이 주장하듯 '주자학과의 타협, 회귀, 또는 통합'이라는 측면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명학을 경학적 주석을 통하여 정당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이해한다.

아울러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중용설> 외에 <중용> 관련 자료들을 검토함으로써 정제두 <중용> 이해를 전면적으로 고찰하는데, 바로 "존덕성과 도문학에 대한 정제두의 입장을 고찰하면서 정제두의 입장은 존덕성과 도문학을 근본

과 방도, 본체와 공부로 분류하여 존덕성이 근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음을 살폈다."라고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의 『중용』 이해를 분석해 보았을 때 그의 경전(『중용』) 연구의 기본 입장은 여전히 양명학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정리한다.

이 두 편의 논문을 상관적으로 검토하면 한정길의 논문은 성문을 열었다면 선병삼의 논문은 성 안에서 직접 성주와 담판한 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한정길과 선병삼이 동의할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 철학사적 측면이 아니라 철학적 측면으로 하곡 사상을 탐구한 논문으로 눈을 돌려보자. 현재 한국 동양철학계의 논문 유형을 크게 대별하면 특정 철학자의 사상 또는 그 철학의 의미 맥락을 밝히는데 치중한 이른바 철학사적인 논문과 현대철학사조(심리철학, 도덕심리학 등)를 통한 새로운 재해석을 시도한 철학적 논문들로 나눌 수 있다. 2000년대 이후로 철학사적 논문과 철학적 논문의 비율을 비교해 본다면 한국 동양철학계의 특징으로 부각되는 이른바 철학적 논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김민재의 <정제두의 양지가 지니는 특징과 구현 과정에 대한 일고>(철학논총 제78집 제4권)는 그 중의 성공적인 1편에 해당된다.

김민재는 본 논문의 목적을 밝히는 자리에서 "조선의 대표적 양명학자인 하곡 정제두의 양지 개념이 지니는 사상적 특징을 살펴보고, 그 양지의 구현 과정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논자는 이 연구를 통해 양지 해석과 관련된 중국양명학과 한국양명학의 차이점을 밝히고, <대학>, <중용>, <맹자> 등에 대한 정제두의 경학적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양지의 구현 과정을 체계화하려는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이 논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정제두의 양지가 가지는 특징에 대한 설명 부분, 둘째는 (그 특징의) 구현 과정에 대한 부분이다. 전자는 철학사적 배경 지식을 충분히 발휘한 내용이고 후자는 교육학(도덕교육)적 이론을 적용한 내용이다. 도덕교육 전공자라는 저자의 이력에서도 예상할 수 있듯이 전자의 내용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잘 녹여서 정리한 내용들이고 후자의 내용은 저자가 의욕을 가지고 새롭게 정리한 내용이다.

먼저 전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 김민재는 "먼저 정주학자들과 육왕학자들의 양지에 대한 견해를 정제두의 그것과 비교 분석하였다. 정주학자들에 비하여 육구연과 왕수인, 양명좌파의 학자들이 양지를 더욱 중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 개념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신념이나 통합성에 비해 논리와 체계성이 부족하였고 서서히 사회적 교화의 기능을 상실해갔다. 이에 반해 정제두는 양지를 분석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이 개념의 도덕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을 채택하였고, 그것을 理의 삼중구조와 양지 체용론을 통해 보여주었다."라고 적고 있다.

이상의 관점은 동양 철학계의 통상적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하기에 김민재도 이와 같은 논리를 채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제두의 이와 같은 성격, 양명좌파와 구별되는 정제두 양명학의 특성을 설명하는 그 방식으로 채택한 '리의 삼중

구조와 양지 체용론'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려진 것처럼 리의 삼중 구조에 대한 이해는 김교빈의 연구 성과가 주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양지 체용론에 대한 이해는 최재목의 연구 성과가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먼저 리의 삼중 구조에 대하여 김민재는 이렇게 말한다. "정제두가 제시한 리의 삼중 구조 안에서 가장 낮은 위상을 차지하는 것은 物理이다. 물리는 사물과 사태의 조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의 사유 안에서 중요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리에 집착할 때 발생한다. 정제두는 많은 정주학자들이 특정 조리를 고정된 리로 규정하고 여기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학문의 본령[心]을 잃어버렸다고 보았다. ……이런 비판 위에서, 정제두가 가장 자주 언급했으며 또 비중 있게 다룬 것이 바로 生理이다. 생리는 초목금수로 대변되는 여타 존재들과 인간을 구별시켜주는 것으로서, 정제두는 이 개념을 인, 명덕, 측은지심 등과 연결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그러나 정제두는 생리를 논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眞理를 언급하였다. 이것은 리의 삼중 구조 안에서 범위로 보자면 가장 협소하지만 가치로 보자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진리로 인해 정제두의 사유는 양명좌파와는 다른 행보를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왜 생리 위에 다시 진리를 상정하는지 충분히 의도는 드러났다. 그런데 이는 하곡의 생리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애초에 하곡이 주자학의 물리에 반대되는 지점에 양지로서의 생리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곡에게 있어서 생리는 곧 양지인데, 양명학자인 하곡에게 양지 본체 너머에 다른 어떤 본체를 상정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물론 진리와 생리는 이명동실이라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상 하곡이 양지 외에 생리를 들고 나온 그 깊은 이유를 헤아린다면 진리는 단지 생리의 속성으로 거론된 것임에 주의해야 한다.

둘째로 양지 체용에 관하여 김민재는 이렇게 말한다. "정제두는 양명학의 폐단에 대해서는 분명 직시하고 있었다. ……이 지점에서 그는 양지의 체와 진리를 연결시킴으로써 이 임정종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양지의 용은 생리와 양지의 체는 진리와 매듭지음으로써, 양지가 보여주는 생동성과 함께 도덕적인 성격까지 확보한 것이다."

본래 양지 체용론을 제기한 최재목의 기본 입장은 체용 관계론에서 하곡은 임정종욕의 양명학적 폐단을 경계하면서 유체유용(선체후용)의 체용론을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그 의도의 순수함과는 별도로 예상치 않는 문제를 야기한다. 원래 양명학은 즉체즉용의 체용론이고 주자학의 체용론은 유체유용의 체용론이다. 바로 이것이 주자의 性과 양명의 良知가 갖는 본질적 차이이다. 만약 이 지점의 의리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하곡 사상은 양명학이라고 하기 어려운 지경에 봉착하게 된다. 설령 임정임욕의 폐단을 막았을지라도 말이다.

게다가 생리라는 말은 양지의 생동성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체의 이치(하곡의 말로 표현하면 生身命根)이다. 생명체가 육체와 정신으로 만들어졌기 때

문에 어느 하나 결핍할 수 없듯이 생리는 정신적인 것(도덕성)과 육체적인 것(생리 욕구)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치이다. 하곡은 주자의 이기이원적인 사유를 생리라는 이기일원적인 개념어로 맞대응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는 이기론의 정합성이 모든 논쟁의 출발점이던 당시 조선학계에서, 생리를 가지고 양지를 정당화한 조선의 양명학자 하곡의 탁월한 성과이다.

한편 후자에 대해서 살펴보자. 김민재는 "본 연구에서는 정제두의 양지 구현 과정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반성적 성찰로서의 誠意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정제두)의 사유에서 성의는 격물과 치지가 혼융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내 마음의 양지가 사욕에 가리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또 시의에 맞게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자체이다. 그리고 계속적인 반성적 성찰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도덕적 충만감으로서의 自慊이며, 이 성의와 자겸을 통해 양지는 도덕적 열정·의지라는 형태로 구현된다."라고 밝힌다.

성의는 반성적 성찰, 자겸은 도덕적 충만, 여기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도덕적 유쾌함(樂, 悅), 그리고 도덕적 충만이 도덕적 열정·의지로 구현되는 것으로서의 至誠과 至聖에 대한 분석 등은 역시 교육학(도덕교육) 전공자의 안목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최종적으로 김민재는 하곡이 제시한 일련의 도덕 공부론들은 현대 교육(도덕교육)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한다. 특히 현재 교육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반성적 성찰', '도덕적 열정·의지' 등 용어의 의미를 명료화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가령 '반성적 성찰'에 대하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성찰은 도덕교육의 또 다른 중요 요소인 도덕적 탐구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물·사태에 대해 내 마음으로부터 발생한 의념을 성실하고 바르게 하려는 노력이자, 도덕적인 측면의 유쾌함과 충만감을 파생시키는 출발점이다"라는 명료한 개념 정의가 가능해진다고 말한다.

또한 '도덕적 열정·의지'에 대하여 '정의적 측면의 민감성이나 도덕적 열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도덕적 충만감을 원동력 삼아 공평하고 바른 마음의 적용 범위를 개인을 넘어 자연만물을 포함하고 우주적인 범위로 확장시키려는 욕구이자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지극한 덕성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의지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도덕 심리학이 여전히 답을 찾고 있는 '무엇이 도덕적 동기화를 만들어내는가? 의지에 기반을 둔 도덕성을 구성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도덕성이 개인 정체성의 핵심을 구성하고 안하는 것을 판가름 내는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곡의 양지학은 많은 시사를 던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김민재는 이렇게 말한다. "정제두가 제시한 양지의 구현 과정을 도덕 판단이 행위로 완성되는 과정을 '도덕적 충만감'과 같은 인간 심리를 반영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도덕 심리학적 시사점을 확보한다." "무엇보다 그가 반성적 성찰로부터 도덕적 열정·의지로 나아가는 일련의 단계들을 양지를 중심으로

통합시켜 다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도덕 심리학에서 도덕성을 논하면서 인지, 정서, 행동을 분리하여 다룬 것과는 인간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도덕 심리학자들은 인지, 정서, 행동의 각각을 도덕성으로 규정하고 통합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기에 연구의 편의성을 확보했지만, 이것들이 통합되어 살아가는 인간 그 자체를 설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제두는 우리의 마음(양지)를 중심으로 삼아 인간의 여러 측면을 통합시키고 있기에 보다 실제적인 인간 이해에 도움을 준다."라고 선언한다.

엄밀한 증명이 필요한 거대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결론 부분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처럼 과감하게 밝히는 것도 이후의 연구를 위한 각오를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전체적으로 방대한 내용을 적당한 크기로 잘 썰어서 알맞게 조리한 마치 잘 차린 한상 같은 인상을 받았다. 14년도에 발표 된 글 중에서 치열한 문제의식이 잘 살아있는 논문으로 꼽고 싶다.

간단하게 3편의 논문을 정리해 보았다. 각 논문들은 논한 주제의식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5. 평가와 전망

14년도에 발표된 8편이라는 적은 편수에도 불구하고 한정길, 김민재, 선병삼, 노승석의 논문들은 문제의식과 논지 전개가 나름대로 탄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실 1년 동안 중요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양명학 연구 논문 편수가 8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은 조선유학사에서 차지하는 양명학의 비중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8편의 논문들이 다루고 있는 연구 대상이 소위 강화양명학파에 집중된 것에서도 여실히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조선양명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양명학자의 발굴과 주제들을 탐색하여 논의의 장을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가장 큰 걸림돌인 문헌의 제약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라는 문제가 버티고 있다. 가령 조선시대 유학자 중에 양명학적 특색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전체 사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자면 양명학자로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든지, 양명학적 색채가 농후하지만 문헌이 전실되어 본격적인 연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